



## “듣는 마음” 책자 소개

###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1.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 2.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턱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해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 4

오늘의 성경읽기

###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 124

9월 6일 공과 - 사람은 존귀하나

9월 13일 공과 - 잘못된 오해가 싸움을 일으킨다

9월 20일 공과 - 하나님의 능력

9월 27일 공과 -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

### 선교사 열전 · 132

아펜젤러 선교사 (3)

## 사무엘상 26:1-12 다윗의 용서

## 사울 왕을 죽일 기회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 기름 부음 받은 자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고린도전서 7장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 에스겔 5장

7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시편 42편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 내 하나님이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무엘상 26:1-12

## 다윗의 용서

### 사울 왕을 죽일 기회(1-8절)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이끌고 광야에 들어와 진 친 것을 확인합니다. 밤 중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사울을 비롯한 군사령관 아브넬과 모든 군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4-5절)만 사울의 옆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당장 사울을 죽일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6-8절).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사울을 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기름 부음 받은 자(9-12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을 본 아비새는 모두 잠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쩌면 아비새의 판단이 적절하고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화근이 되어 끝까지 다윗과 자신을 괴롭힐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도피와 위협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잠재울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 틀림없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7:1-12**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 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다윗을 믿는 아기스**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겟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겟과 겐 사람의 네겟이니이다 하였더라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니라

**에스겔 6장**

**6**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찌꺼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시편 44편**

**4**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 읽기 가이드

사무엘상 27:1-12

###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1-7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에 다윗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에 갔고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간 것을 알고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서는 벗어났으나 블레셋의 손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 하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식으로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의 요청으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시글락의 촌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 다윗을 믿는 아기스(8-12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누구를 침노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미움 받지 않고자 유다 남방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우방인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남방을 친 것으로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멜렉을 치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멜렉을 친 것이 아기스에게 알려져 미움을 받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그가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무엘상 28:1-13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

## 블레셋의 편에서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 하는 다윗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넵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 신접한 자를 만난 사울 왕

**6**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고린도전서 9장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 에스겔 7장

**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27**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 시편 45편

**6**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28:1-13

##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

**블레셋의 편에서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 하는 다윗(1-5절)**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자신과 함께 참여할 것을 말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는다면, 아기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배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에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의 청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상태였고 또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 준 것은 군사적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고통스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장소를 피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신접한 자를 만난 사울 왕(6-13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스스로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필요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고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필요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9:1-11** 전장에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다윗을 신뢰하는 아기스**

**1**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2**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을 싫어하는 블레셋 수령들**

**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이까 하니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스겔 8장**

**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황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시편 47편**

**8**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 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사무엘상 29:1-11

## 전장에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

### 다윗을 신뢰하는 아기스(1-3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이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를 인솔하여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아기스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어이 다윗은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왜 히브리 사람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가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방백들에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있는지 일 년이 넘어 여러 달이 되었지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다윗을 옹호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 다윗을 싫어하는 블레셋 수령들(4-11절)

아기스는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니 전쟁에 갈 수 없다고 강권하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정중하게 싸움터에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거하며 다윗이 정직하여 그의 악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체하고 부하들과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상잔을 하거나 아기스를 배신해야 하는 기막힌 웅덩이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호해주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31:1-13**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 요나단의 죽음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 사울 왕의 죽음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레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벤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에스겔 9장**

**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잦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갓으리라 하시더라

**시편 48편**

**1**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사무엘상 31:1-13

##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 요나단의 죽음(1-2절)

요나단은 사울 왕의 큰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울 왕의 가정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였으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자기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므마스스의 가파른 계곡을 기어 올라가 블레셋 군대 2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서 커다란 승리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고,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 사울 왕의 죽음(3-13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유력한 가정 출신으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삼상 13:5)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사무엘 대신 제사를 수행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후 야훼의 신이 사울을 떠났으며 그는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자신보다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여러 번이나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은 사무엘의 혼을 만나 책망을 듣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 중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시편 49:1-20 백성들이 들으라

##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 못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 **2**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도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도다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도다

## 허망한 세상을 쫓지 말라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14**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도다 (셀라)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도다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장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 고린도전서 12장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에스겔 10장

**18**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시편 49:1-20

## 백성들이 들으라

###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1-10절)

이 시편은 “뭇 백성들이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며,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에 그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늘 읊조리고 생각하여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오묘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 허망한 세상을 좇지 말라(11-20)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 받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시편 50:1-23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 신앙생활을 아시는 하나님

**1**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3**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4**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6**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7**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2장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 고린도전서 13장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에스겔 11장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50:1-23

##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 신앙생활을 아시는 하나님(1-11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이십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 점점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번제의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제물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흠 없는 제물 뿐 아니라, 백성들의 흠 없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16절 이하).

###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12-23절)

'감사'란 단어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은 자신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늘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시편 51:1-19 다윗의 회개

##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

**1**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 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 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

**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3장

**28**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벨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야훼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 고린도전서 14장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 에스겔 12장

**1**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시편 51:1-19

## 다윗의 회개

###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1-9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큰 죄를 범한 후에 가책과 자기혐오로 인한 고뇌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나타낸 “진실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시는 성령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화 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또한 이 시에는 탄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약속들에 대한 감사의 서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의 모습과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나타낸 구약성경의 최고의 참회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10-19절)

다윗의 기도는 믿음에 확고하며 따라서 순종에도 변함이 없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정신적, 도덕적인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용서의 참된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통해 회개한 자의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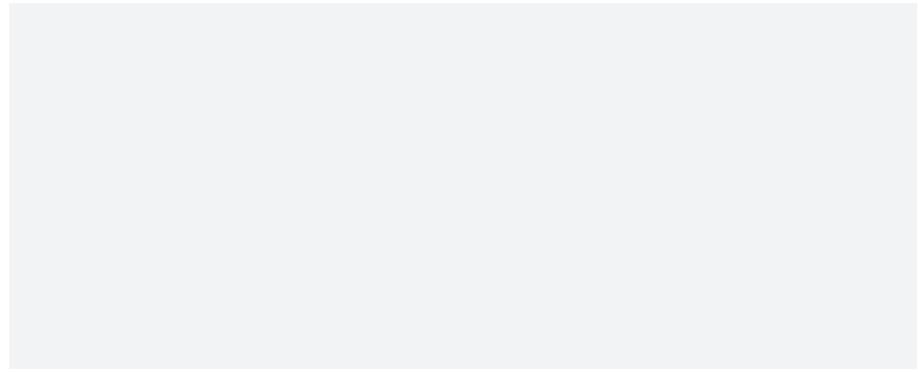
**시편 54:1-7** 감사로 이겨내는 시편

##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

**1**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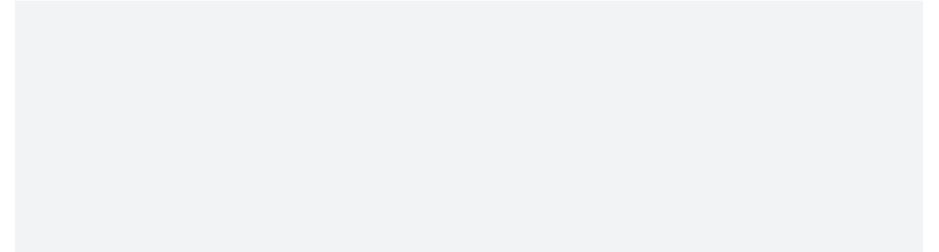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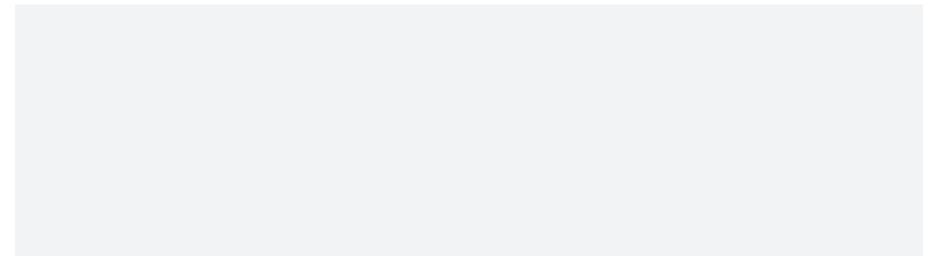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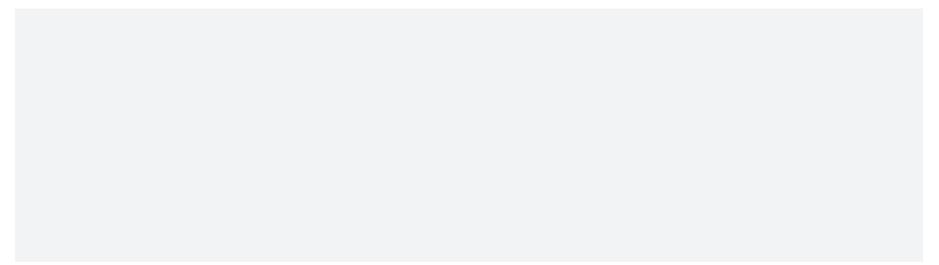
**10**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에스겔 13장**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시편 54:1-7

## 감사로 이겨내는 시련

###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1-3절)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대적들은 포악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3절).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허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시 146:3).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하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3절).

###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4-7절)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4절).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4절). 대적에게 핍박받고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갚으실 것입니다(5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이름 때문입니다(6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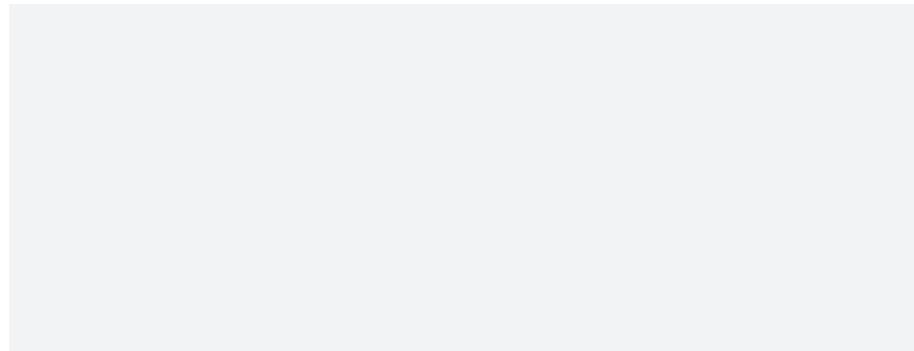
## 시편 55:1-16 부르짖을 때 회복됩니다

## 환난 때의 부르짖음

**1** 하나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8**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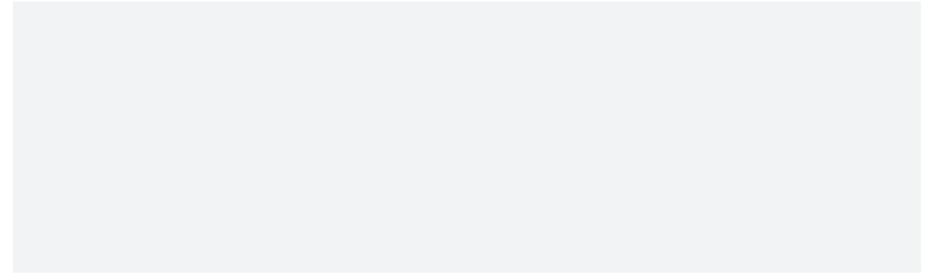
**9**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10**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5**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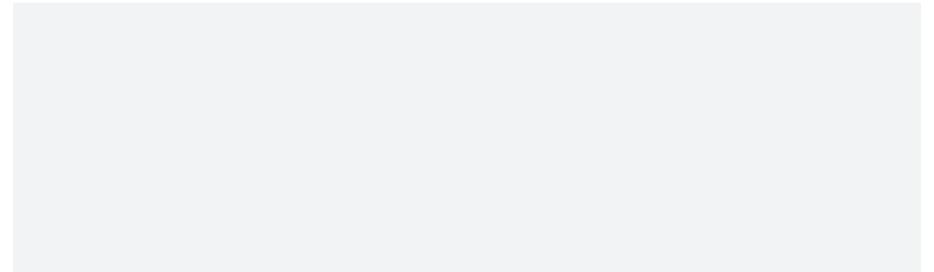
## 사무엘하 6장

**11**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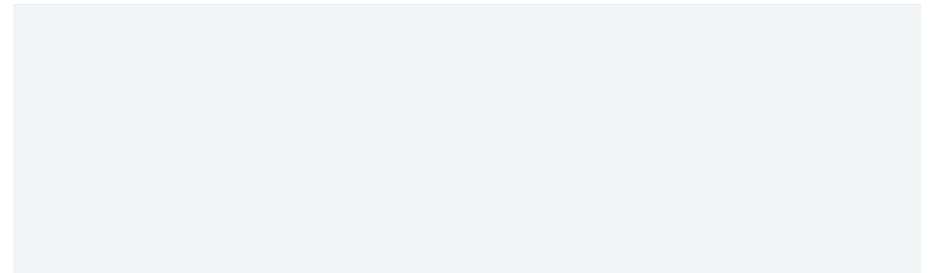
## 고린도전서 16장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 에스겔 14장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시편 55:1-16

부르짖을 때  
회복됩니다

**환난 때의 부르짖음(1-8절)**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의 압제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순간을 지냈습니다. 사망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4절).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홀로 살고 싶다는 괴로운 심정을 고백했습니다(5-7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광풍이 이는 바다를 향해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1절).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가는 길입니다(8절).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심(9-16절)**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아픔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으로 더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12-13절). 또 예전에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14절).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만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모두 경험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하셨던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아픔,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는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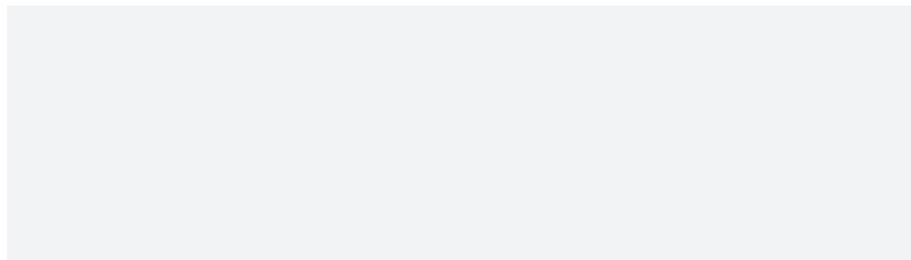
**고린도후서 1:1-11**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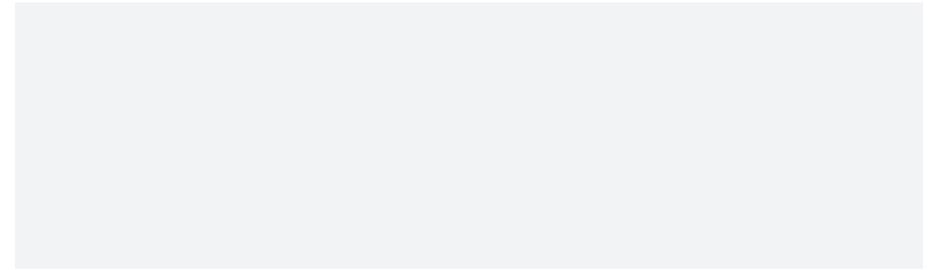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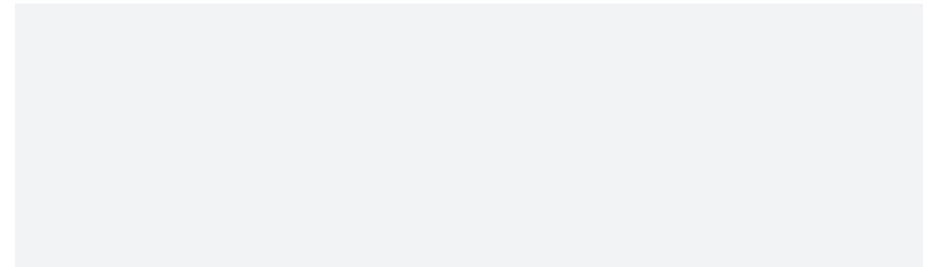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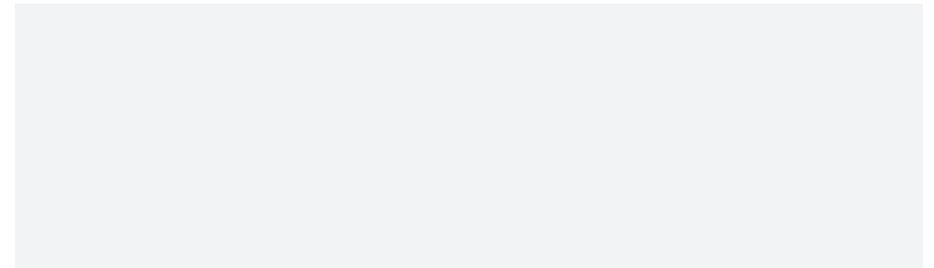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에스겔 15장**

**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시편 57편**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린도후서 1:1-11

##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1-7절)

바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고린도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복음도 의심되었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목회 전체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하자는 것도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말 사도가 맞긴 한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제기 된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담긴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 믿었던 이에게 의심을 당하는 것만큼 큰 환난은 없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이 전 한 복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힘들고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8-11절)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견디길 원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환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2:1-17**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1**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यो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스도의 향기**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에스겔 16장**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시편 59편**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고린도후서 2:1-17

##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1-1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통해 근심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서로에게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바울의 권면대로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자들 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킨 이들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 집니다. 때론 심각한 문제들로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한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책망 후에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돌이킨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그리스도의 향기(12-17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승리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승리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구원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3:1-18**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

##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와 영광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2**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에스겔 17장**

**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야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야훼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시편 61편**

**1**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고린도후서 3:1-18

##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

###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1-6절)

옛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으며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을 정죄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살리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와 영광(7-18절)

하나님께서서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죄를 씻으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을 때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즉 율법 체계와 그 속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의 옛 구습과 얽매이는 것과 정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4:1-15** 질그릇에 담긴 보배

##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에스겔 18장**

**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63편**

**1**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린도후서 4:1-15

## 질그릇에 담긴 보배

###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1-10절)

복음을 깨닫고 받고 믿은 신약 성도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몸을 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그 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며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들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11-15절)

바울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짚어지듯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항상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죽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 얻은 영혼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고린도후서 5:1-15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는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2장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 에스겔 19장

**10**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12**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3**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4**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 시편 65편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후서 5:1-15

##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1-10절)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 곧 물질세계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세계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은 현재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장막은 보통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치는 것이며 사용 후엔 걷어서 넣어두거나 옮겨서 다른 곳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영구적이지 못하고 얼마간 쓰면 낡아지고 쇠퇴함을 표현한 것이며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흩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11-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6:1-18**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37**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훔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에스겔 20장**

**19**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시편 66편**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 읽기 가이드

고린도후서 6:1-18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1-13절)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간절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며 더욱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14-18절)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되어 죄의 종이 되고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 된 욕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메서는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우상은 같이 사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해야만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7:1-16**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쫓편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이라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3**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뉘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17**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에스겔 21장**

**26**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시편 68편**

**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고린도후서 7:1-16

##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1-7절)

‘이 약속은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얻습니다(요 1:12). 우리는 장차 의인의 부활 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록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목표, 곧 성화의 목표입니다. 비록 완전한 성화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불가능할지라도, 성도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달음질할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8-16절)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근심이기에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 즉 의식주의 염려, 건강의 염려, 경제의 염려, 사회 환경의 불안 등을 말합니다.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고린도후서 8:1-15 풍성한 연보

##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균형 있게 만드는 것

**10**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5장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 에스겔 22장

**14**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 시편 69편

**13**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고린도후서 8:1-15

## 풍성한 연보

###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1-9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며 부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고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생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 균형 있게 만드는 것(10-15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은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목적지에 전달하려 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려 했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 없이 정직하게 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다루는 모든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헌금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행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헌금의 모든 내용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처리됨으로써 아무에게도 비난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균형 있게 사용하려는 것은 모두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고린도후서 9:1-15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펍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라가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6장

**12**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 에스겔 23장

**35**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 시편 70편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고린도후서 9:1-15

##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1-7절)

바울은 헌금을 심는 농사 일에 비유했습니다.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처럼 많이 낼수록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은 헌금을 사람의 마음의 선한 결심대로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답지 못하고 복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8-15절)

하나님께서서는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너그럽이 돌아보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 맺어야 할 의롭고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10:1-18**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에스겔 24장**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갈에 엮드러지게 할지라

**시편 72편**

**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보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보다

고린도후서 10:1-18

##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1-8절)

8절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 얻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권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목회는 구원 얻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해 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약하게 보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고 보는 것은 그의 외모만 본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풍성한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9-18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에 의해 풍성히 넓어진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자랑과 전도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주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과 선한 인품을 가진 자는 참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고린도후서 11:1-15 거짓 사도와 바울의 비교

## 참 선생 바울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도 그러나 나는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 거짓 사도들

**12** 나는 내가 해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8장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 에스겔 25장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 시편 73편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린도후서 11:1-15

## 거짓 사도와 바울의 비교

### 참 선생 바울(1-11절)

바울은 자신이 참 선생이란 증거를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7절), 겸손함(7절), 섬김의 자세(8절), 모든 일에 조심하는 태도(9절) 등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에 있던 거짓 선생들과 구분되는 참 선생으로서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약간의 손상도 입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의 언행과 태도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힐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성도의 언행은 항상 바울처럼 바르고 주의 깊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 거짓 사도들(12-15절)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자신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행한 열매 때문에 결국 거짓 사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자신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사람조차 파멸에 이르게 하므로, 성도는 항상 이들을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 행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고린도후서 12:1-18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 육체의 가시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 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두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자급하는 사도 바울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역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19장

39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 에스겔 26장

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 시편 74편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 읽기 가이드

고린도후서 12:1-18

###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 육체의 가시(1-10절)

바울은 자신의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과 계시를 말한 뒤에(1-4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어 교만 해지지 않도록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5-10절). 즉 거짓 사도와는 달리 바울 자신의 체험을 그의 사도권을 확증하는데 근거로 삼고, 그의 연약함을 들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겸손하게 모든 상황을 파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성도로 하여금 문제 앞에 겸손케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 자급하는 사도 바울(11-18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고린도 1차 방문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행18:1-17), 2차 방문 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책망했습니다(고전 2:1). 그리고 이제 3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바울은 여행 경비의 자급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재물을 탐하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고린도후서 13:1-13** 완고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바울의 단호한 경고**

**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 하리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6**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복**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에스겔 27장**

**4**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시편 75편**

**1**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고린도후서 13:1-13

완고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

### 바울의 단호한 경고(1-10절)

바울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어조로, 만약 세 번째 방문 시까지 악행을 없애지 않을 경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탈선을 막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정화 시키겠다는 바울의 충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사도의 증거를 찾고자 했지만,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문에 앞서 미리 편지를 보냈던 것은 그들이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난 후에 만나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복(11-13절)

앞부분의 준엄한 책망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격려와 축도로써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질책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갈라디아서 1:1-17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

## 사도직의 근거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 바울의 자기 변호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21장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 에스겔 28장

**22**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을 알지라

## 시편 77편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갈라디아서 1:1-17

##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

### 사도직의 근거(1-10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후에 전개될 본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공로와, 부활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오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서신서들에서 나오는 칭찬이 없고, 처음부터 바울 자신의 확고한 주장을 간결하고 힘있게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을 쫓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에 관해서 준엄한 책망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6-9절).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열정적인 외침은,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며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 바울의 자기 변호(11-17절)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고 이신칭의 교리의 논리적인 변증에 앞서 바울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교리 등의 계시와 사도로서의 권위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고히 합니다(11-12절). 그는 회심 이전에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으나(13-14절),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갈라디아서 2:11-21** 이신칭의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 연합 : 그리스도 안에서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혈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무엘하 22장

**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도다

### 에스겔 29장

**6**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 시편 78편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갈라디아서 2:11-21

이신칭의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11-14절)

사도 바울은 게바(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11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그들에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식사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12절). 바울의 눈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외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14절). 게다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외식(위선)을 피하고 차별 없이 형제를 대하여 진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 연합 : 그리스도 안에서(15-21절)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위대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구원)을 얻는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어떠한(조건과 행위 등)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은 자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인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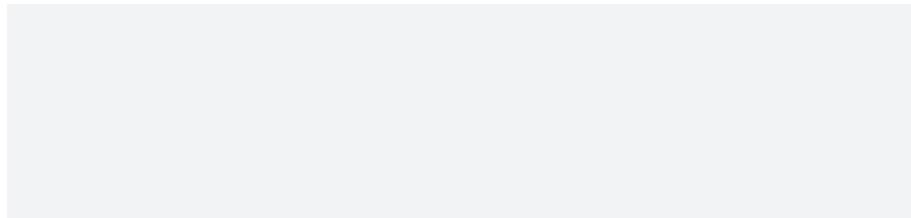
**갈라디아서 3:1-14**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십자가

##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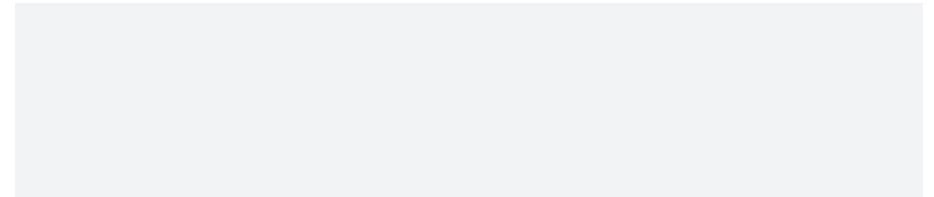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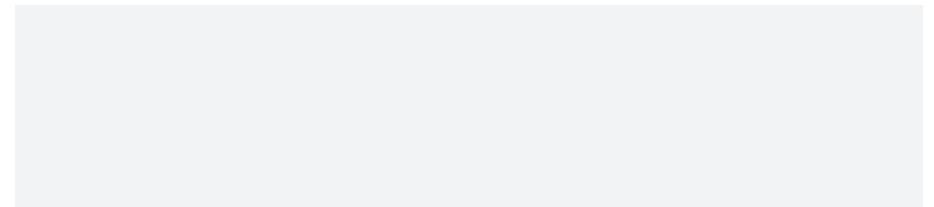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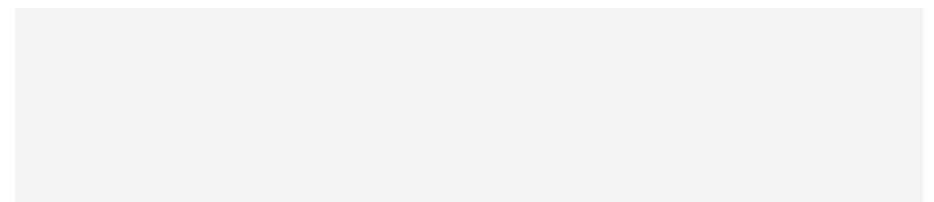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에스겔 30장**

**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3** 그 날이 가깝도다 야훼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시편 78편**

**38**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갈라디아서 3:1-14

##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십자가

###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1-6절)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틈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던 할례파(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받고 구약의 낡은 옛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위대하고도 완전한 구속 사역의 성취를 부정하며 진리를 오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울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1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3절).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칭의)은 율법의 행위(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2,5절). 이제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밝히 보입니다(1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7-14절)

구원 받기 전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했을 때, 율법의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율법의 의무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기에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사망) 아래 갇혔습니다. 그러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13절), 성도는 율법의 저주(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칭의의 기원인 아브라함의 예(창15:6)를 들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확증합니다(6-7절).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거룩한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8-9,14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갈라디아서 4:1-20** 종이 아닌 상속자(자유인)로 살라

## 아들의 명분(자격)을 얻은 교회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3**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 그 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에스겔 31장**

**10**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시편 79편**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갈라디아서 4:1-20

## 종이 아닌 상속자(자유인)로 살라

### 아들의 명분(자격)을 얻은 교회(1-11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한 상속자가 어릴 때에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아래 있던 것처럼(1-2절),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3절).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는데(4절), 이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즉 율법의 의무와 저주 아래 갇힌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녀의 명분(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마음에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마땅히 '아버지'로 고백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상속)을 받습니다(7절). 그렇기에 바울은 이 큰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주의로 돌아가 결코 종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9-11절).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계절)과 해를 지키는데,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구약의 옛 낡은 율법으로 되돌아가 옛 규례에 다시 얽매이려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10-11절).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12-20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12절). 바울은 그들이 처음 자신을 맞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경험했던 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15절). 바울은 그들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순전하게 믿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크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하기까지 합니다(19절). 우리도 전수 받은 복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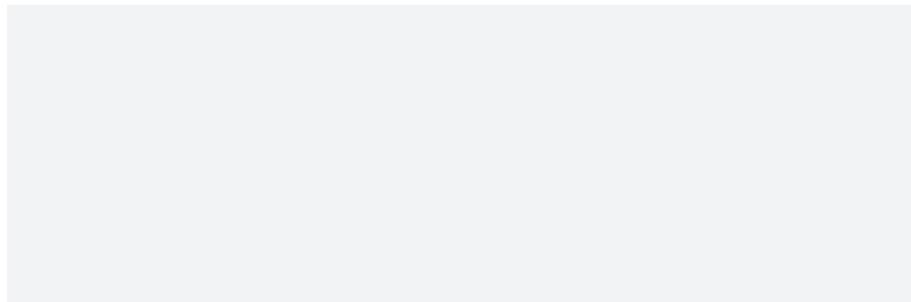
**갈라디아서 5:1-15**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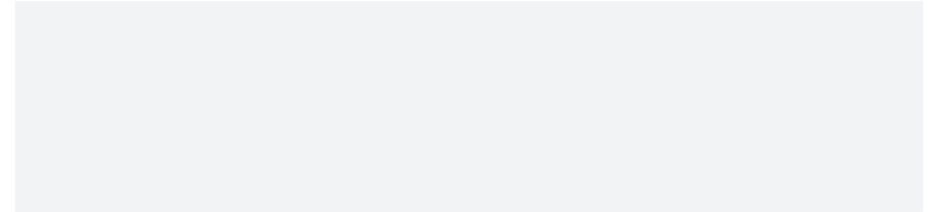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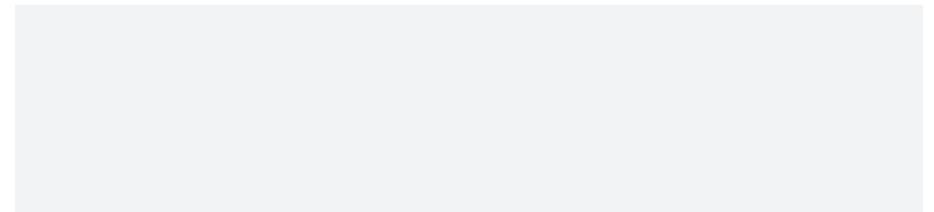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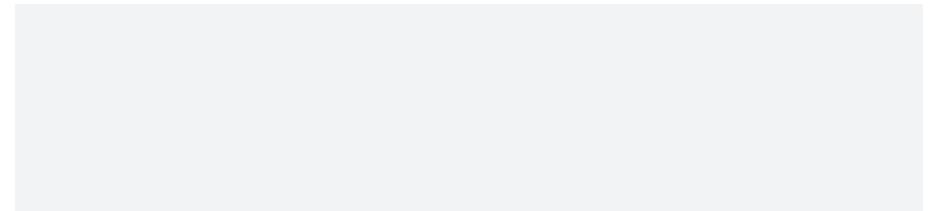
**30**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에스겔 32장**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3**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도다

**시편 80편**

**19**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갈라디아서 5:1-15

##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1-12절)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다시는 결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1).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절대로 방종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구약(옛 언약)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종이 아닌 자유자(자녀)로서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할례파(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빼앗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기에, 그들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9-10절). 이렇듯 성도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순수함을 굳게 지키며,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그 어떠한 비진리(특히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앞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자유와 사랑을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13-15절)

그러므로 바울은 결국 교회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전합니다(13절).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의 적극적인, 실천적인 요구입니다. 성도가 받은 자유는 결국 교회의 형제자매를 내 자신(몸)과 같이 종처럼 섬기며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이루는 거룩한 삶입니다(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본을 가장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더욱 서로 종처럼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갈라디아서 6:1-18**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 짐을 서로 지라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에스겔 33장**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시편 81편**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갈라디아서 6:1-18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 짐을 서로 지라(1-10절)

바울은 끝으로 몇가지 권면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서 유혹(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1절). 또한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2절). 그러나 성도 개인의 짐은 각자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5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6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7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자기 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7-8절).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9절).

###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11-18절)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강조한대로, 할례파들의 꾀임대로 할례를 받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12절). 할례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 그들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13절). 그러나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14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해 높이 세워진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요, 가장 큰 자랑이자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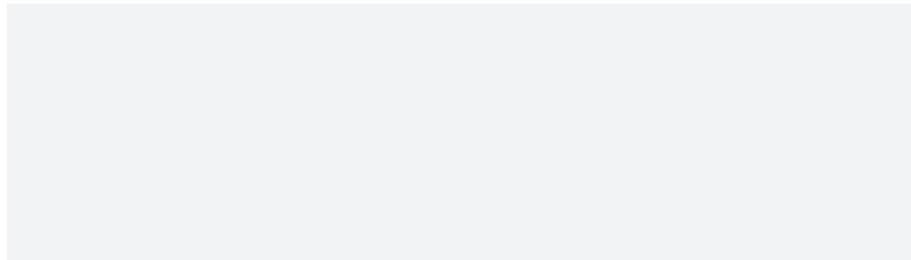
**에베소서 1:1-14**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찬송하라

## 하나님의 뜻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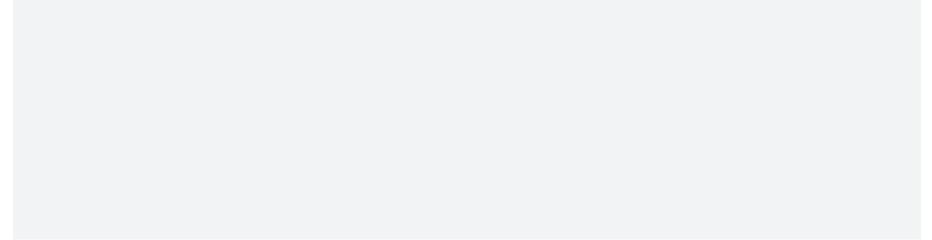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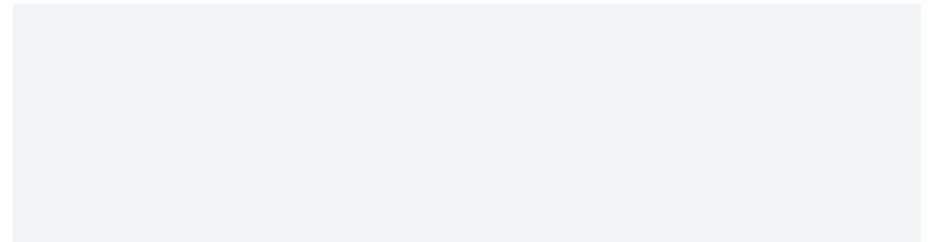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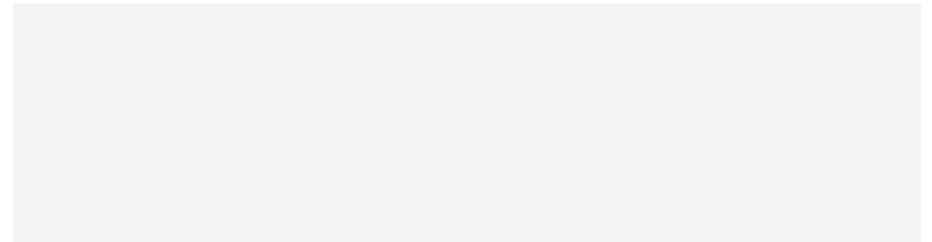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에스겔 34장**

**11**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시편 83편**

**1**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에베소서 1:1-14

##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찬송하라

### 하나님의 뜻(1-2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1절). 바울은 소명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며 편지합니다(2-3절).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신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3-14절)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 전부터 협력하시며 일해오셨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4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7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8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9-10절). 그 신비한 뜻, 곧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바로,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해야 합니다(12절).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를 인치시고,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보증하십니다(13-14절).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14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람은 존귀하나

## 🎵 하나님 찬양하기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통 86)
-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통340)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시편 49편 1-20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 표제어가 붙은 것은 모두 11편이 있는데, 제2권에 7편, 제3권에 4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제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임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10에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읽거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른 고라 자손의 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시'로 분류되어,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이어서, 의지해야 할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2절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적용과 나눔** 시인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소중한가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관찰과 묵상

12절에서는 장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한 반면, 20절에서는 깨닫지 못 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적용과 나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말씀 다지기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그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나눠보세요.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13일  
공과

# 잘못된 오해가 싸움을 일으킨다

🎵 하나님 찬양하기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그 당시 앗몬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였으나 다윗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의 죽음에 사절단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하논은 그들이 자신들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냐는 관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사신들에게 수치를 주어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발단이 되어 다윗이 앗몬과 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앗몬 자손의 관리들이 어떻게 오해 했나요?(10:3)

2. 앗몬 왕 하논은 다윗의 사신들에게 어떠한 수치를 주었나요?(10:4)

**적용과 나눔**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나하스를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이를 오해하고 오히려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오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1. 다윗은 앗몬과 싸우기 위해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요압은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나요?(10:12)
2.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앗몬 자손들을 돕던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하였나요?(10:19)

**적용과 나눔** 다윗의 분노를 산 앗몬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예부대가 나가 엄청난 수의 동맹군들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전혀 싸울 의도가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이성으로 맞지 않는 일 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대로 따를 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앗몬과의 전쟁에 다윗은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그의 수하들에게 담대히 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수행하자'라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도록, 말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요압 장군의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능력

## 🎵 하나님 찬양하기

-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고린도후서 9장에 이어 사도바울 자신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며 그들은 육신대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잘못된 일들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며 진리를 말했고 교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요?(10:2)

---

2.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며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10:4)

---

**적용과 나눔** 사도바울의 영적 권위는 자신의 이론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많은 은사를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나에게도 어떤 능력과 은사 또는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1.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0:10)

---

2.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10:18)

---

**적용과 나눔** 사도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적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외모나 언변이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했고, 자신은 철학적 논증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다지기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잘못된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잘못된 일들과 올바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심어진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회와 각자 속해 있는 교구 식구들을 돌보며 그들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며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 말씀으로

1.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하기

2.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9월 27일  
공과

#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

🎵 하나님 찬양하기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통405)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통465)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갈라디아서 4:1-7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성경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칭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 조문을 뜻하기도 하고, 5대 제사로 대표되는 제사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복음의 반대 개념'으로서 할례와 여러 조문입니다. 만약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율법을 절대화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특히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자신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여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인 바 되었나요?(3:23)

💬 **적용과 나눔** 율법의 역할은 마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며, 진단서와 같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 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 적힌 계산서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은 우리를 찢겨 주시며,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님께서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 하게 하는 나만의 고정관념이나 율법은 무엇인가요?

### 관찰과 묵상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3:26).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3:29, 4:7)

💬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값을 치르다)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4:4,5). 나아가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아들이기에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점에 대해 나눠보세요.

### 말씀 다지기

종은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자유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두려움이 행위의 동기가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이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종이 아닌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아펜젤러 선교사(3) (Henry G.Appenzeller)(1858~1902)

(한국 체류 1885~1902)(한국 이름 : 아편설라)

### 배재학당에 삼문출판사를 세워 문서 보급에 앞장서다

아펜젤러는 1889년 배재학당 안에 삼문출판사를 세워 전도문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인쇄하여 조선의 인쇄-출판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전에는 기독교 서적 대부분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했는데, 아펜젤러는 서울에 인쇄기를 설치해 기술을 보급하고 조선의 출판 기술을 향상시켰다. 그는 전도와 교육사업과 동시에 성경 번역 작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1900년 어간에는 위원회에서 신약성경 대부분을 번역하였다.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정은 일본에서 한문성경에 이두 토를 단 성경, 일명 《현토한한성서》(懸吐漢韓聖書)를 출간하고 이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1885년에 출간했다. 바로 이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다.

### 성경 번역의 원칙

- 여기서 성경 번역의 몇 가지 원칙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첫째, 선교사가 조선인 번역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초벌 번역을 한다.
- 둘째, 초벌 번역을 다른 번역자에게 보여 의견을 듣고 수정한다.
- 셋째, 수정본을 또 다른 번역자에게 보여 의견을 듣고 수정한다.
- 넷째, 번역자 회의를 열어 한 절씩 읽어 가면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선교사들은 헬라어성경과 개정판 영어성경(Revised Version)을, 조선인 번역자는 한문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다. 후에 '성경번역위원회'는 '대한성서공회'로 발전하였고, 1937년 개역 성경이 출판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선교사들이 유식자의 언어만 선택하지 않고, 무식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고심했다는 점이다. 당시 천대받던 한글이 한글성경 번역으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언어로 통용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호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란 용어를 언더우드의 '천주(天主)님과 게일 선교사의 '하나님'의 논쟁에서 '하나님'으로 결정된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게일선교사가 한국 문화에 심취한 결과 나온 것이기도 하다.

### 아펜젤러, 자기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아펜젤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상선을 타고 목포로 가던 중 군산 앞 어청도 인근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당한다. 그는 17년간 교육과 봉사정신으로 한민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4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부근에 있는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사실 교육과 한글성경 보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틀도 아펜젤러가 놓은 것이다. 미국성서공회는 그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알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성경번역에 바쳤다.”(1903년 미국성서공회 연례보고서)

제임스 게일은 아펜젤러의 죽음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추도하며 그가 생명과 성경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아펜젤러와 배를 같이 타고 있던 운산 광산의 노동자 보울바(J. F. Bowlby)의 증언을 토대로 아펜젤러의 전기를 쓴 그리피스는 아펜젤러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아펜젤러는 목포를 향해 같이 가던 조선의 여학생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구명조끼를 그 여학생에게 양보하며 그 여학생은 살리고 하늘로 갔다. 이때 서기와 어학선생으로 수고한 조선인 조한규도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착되기까지 이름 모를 수많은 조선인 어학 선생과 조사, 그리고 전도부인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에는 아펜젤러가 선교여행 때 사용했던 가죽 가방이 있다. 세로 90cm, 가로 40cm, 높이 30cm의 여행용 가방이다. 아펜젤러는 저 빛바랜 가방에 옷가지와 개인용품을 가져왔을 것이다. 아니, 그가 가방에 담아 제물포로 가져온 것은 조선 민중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은상철 장로)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